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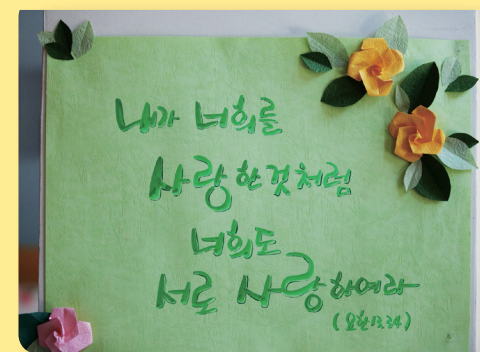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교회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인간이란 이 세상에 없다.”(코헬 7,20)며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밝힙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로마 3,9)라며 죄에 대한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인간적으로 존경 받을지라도 ‘마음 속’에 떠오르는 죄에서까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밝히는 죄인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흉악범이 아니라 ‘하느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운 것으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분의 의로움과 동떨어진 행실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죄의 유혹 앞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삶에서 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조차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허약한 인간의 성정을 아시기에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복음을 선물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치른 희생의 값으로 세상의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기막힌 은혜의 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무조건 죄가 씻긴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의 허물과 어떤 이의 잘못에 자신을 비추는 비뚤어진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를 세밀히 살필 때 주님 마음에 드는 의인이 됩니다.

『소곤소곤 이런 질문해도 되나요?』, p.12~13, 장재봉 신부 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 주님의 법 |

(시편 119,1-8 주님의 법)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07장 “하나이신 천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소서!
- 저희가 나누는 작은 사랑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19, 1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 2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3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
- 4 당신께서는 규정을 내리시어
열심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 5 아, 당신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저의 길이 굳건하였으면!
- 6 그러면 당신의 모든 계명을 바라보며
제가 부끄럽지 않으리이다.
- 7 제가 의로운 법규를 배울 때에
당신을 올곧은 마음으로 찬송하오리다.
- 8 당신 규범을 지키오리다.
저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돈, 명예, 권력의 유혹을 떨쳐내고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을 단순히 소유 개념으로만 이해하여 재산, 권력, 지위를 행복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꼭 재산이나 권력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기 전에 우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한 단어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가르침, 법, 법규, 규정, 법령, 계명,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요한 14,15)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요한 14,21)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말라키 예언자 이후 400년 동안 말씀에 굶주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땅 어디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예언자의 소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있었지만,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성경에 대하여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날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07장 “하나이신 천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봄을 기다리는 현동지역 식구들 |

- 월영본당 제8구역 반장 김보옥 레지나 -

1998년 1월 20일 월남동본당에서 분가한 월영본당은 경남 대학교 근처 시내버스 차고를 개조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성전에서 ‘해운동본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9월 17일 월영성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2007년 8월 18일 모든 교우들의 염원이었던 새 성전 건축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10개월 만인 2008년 6월 28일, 고풍스럽고도 세련된 멋을 가진 새 성전이 완공되어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월영본당은 8개 구역 17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8구역 현동지역은 신설 구역으로 현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구역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 등지에 사시다가 이사를 오신 전입 교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서먹하지만, 반모임에서 만난 교우들을 레지오 회합에서도 만나게 되면 더욱 반갑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되니 서로 간에 돈독한 정이 쌓여갑니다. 반모임이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주로 낮에 모임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형제님들을 위해 저녁에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반별로 전례봉사를 하며 구역별로 밥 봉사를 합니다.

이제 시작한지 1년이 조금 넘는 모임이지만 젊은 분들의 참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활력이 됩니다. 아직 교적을 옮기지 않은 신자도 많고 냉담중인 분도 많아 그분들을 초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그분들이 교적을 옮기도록 권유하고, 월영본당의 8구역의 식구로 확실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8구역의 목표는 각 아파트마다 반이 생겨 구역 안에 총 다섯 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올 봄부터는 선교활동도 해보려고 합니다. 구역 내에 가톨릭을 알릴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기꺼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임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웃들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전할 수 있기를 청하며, 8구역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